

# 제 13회 한일 미래포럼 보고서



이름: 나강문

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학년: 2학년

전공: 항공교통물류학부

작성일자: 2020년 1월 4일

활동일자: 12월 24일~12월 26일

저는 제13회 한일미래포럼에 지원하였습니다. 비록 일본어와 관련된 기본 지식은 없었지만, 일본인 친구들과 과의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럼을 할 때 통역사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할 만한 활동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한일 취업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일본 쪽에 취업을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인 중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토론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토론의 주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 토론 사진)

첫날에는 토론 조를 배정받은 후 각자의 생각을 발표 및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 따로 ppt를 준비한 후 일본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기업의 경우 IT기업에서 수요가 많고, 한국인의 업무 성향 특성(밤샘업무에 대한 거부감 小) 등이 IT 업무 등에 적절하기 때문에 두 특성을 종합하여서 양국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조 내에서도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조사를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저는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양국으로 취업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한국인이 일본에 취업할 때 장점밖에 없는 지 알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단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일본 회사의 경우 한국 회사보다 지켜야 할 매너나 에티켓 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의 경우 명절이나 새해의 경우에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축하 인사 등을 보내서는 안되고 무조건 우편 등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대기업 기준으로 초봉이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타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특성상

월세나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이 커서 근로를 하는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므로 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 갑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취업자인 한국인이 을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면서 외국을 가든 어디든 가더라도 취업에 있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날 토론 사진)

첫번째 날과 두번째 날 토론 정리가 다 끝난 후 세번째 날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조들의 발표를 열심히 보았는데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들도 열심히 토론 진행을 하여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구나였습니다.

특히, 발표를 보면서 통역사분들의 고생이 느껴졌던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마지막 날 단체 사진)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소극적인 성격과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 활동에 있어서는 열심히 참여해서 많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